

포교대상 대상 수상한 삼천사 성운 스님

“이 시대 불자 사명은 ‘맞춤형 포교’ 영아보육원·지역민 쉼터 새 발원”

불교 포교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불자에게 수여되는 제27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에 불교사회복지의 선구자로 활동해온 성운 스님이 수상했다. 부처님 자비를 묵묵히 실천해온 성운 스님은 11월 18일 스님의 주석처 서울 삼천사에서 만나 수상 소감과 또 다른 서원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께서는 많은 상을 받아오셨지만 포교대상 수상이 더욱 특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

출가수행자는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표창, 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 국민훈장, 만해대상 등을 받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수상의 순간 문득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참회하였습니다.

이번 포교대상을 수상하며 저는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끝까지 더욱 활발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을 전법포교 현장에서 보살로 나무라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가짐을 진지하고도, 겸허하게 하여 상을 받았습니니다.

또한 포교대상은 불교계 안에서 제가 걸어온 길을 찬탄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벅찬 환희심이 났습니다. 사실 수행자가 포교활동을 하면 칭찬보다 질책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불교계 내에 서로가 칭찬하는 분위기가 확대돼 더욱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스님께서는 '받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이 같은 '주는 행복'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인데 이 낙(樂)은 산스크리트어로 'sukha'이며 즉, 행복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지요. 그런데 어떤 행복일까요.

갈애(渴愛)가 없는 행복입니다. 갈애는 행복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까요. 나 아닌 다른 대상에서 행복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받다가 못 받으면 행복이 사라지고 갈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면 행복은 계속 됩니다. 주는 것으로 인해 완전한 '비움'을 깨닫고, 그 비움 속에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직장인이려면 그 사람의 직장 업무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고, 가정주부라면 가사를 하면서도 마음을 비워 자비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요. 잡사의 비움을 통한 행복을 맞본다면 결국에는 보다 큰 비움을 통한 행복으로 가게 됩니다. 현대의 포교가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는 행복'은 결국 비움으로 가는 수행이군요. 그렇습니다. 불자들이라면 잠깐이라도 수행을 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원을 세우고 자신을 비우면 실천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자비나눔도 수행에 근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지요.

이런 실천행은 비단 물질적 나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한 동작에서도 발현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광활한 비움의 여백이 있지만 그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큰 여백을 봤으면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비움으로 영원한 행복을 갖게 함을 알려줍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비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대 사회복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어떻게 주는 행복과 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에 따른 고택에 빠져 있습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은 생존이, 물질적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자야존

“받는 행복” 일시적... 갈애의 원인

“주는 행복” 비움 깨닫는 수행

팔만사천 번뇌에 “맞춤형” 포교를

삼천사를 현대의 삼보사찰로

시민선방·불교도서관 운영

영아원·미혼모·청소년 복지도

업성이 훼손당한 이들에게는 자야존증이 필요하겠지요. 진정한 복지는 부처님 법을 다양한 그릇에 담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전이 8만 4000가지인 것처럼 포교와 복지의 방편도 8만 4000가지는 돼야지요. 근로자, 노동자 등등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 맞는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명상과 힐링 등을 통해 그 현장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도 '주는 행복'입니다.

스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시고 현재 30여 복지시설에서 700여 종사자들과 함께 '주는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이 같은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주석하고 있는 삼천사가 위치한 은평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철거민들이 떠밀려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

죠. 8명의 식구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고 아이들은 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복지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들을 보살피는데 바빴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혹은 소년원에 가게 되면 소년원에 가서 보살피고, 또 아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군부대도 위문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방면에서 포교를 하게 됐습니다.

전환점은 1985년이었습니다. 총무원 사회부장 시절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가 국가예산으로 복지재정의 90%를 충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다있구나 했죠.

10여 년 동안 법인을 만들기 위해 원(願)을 세우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이 인(因)이 되어 연(緣)을 끌어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연기법을 본 것입니다. 인이 선이면 선이 오고, 악이면 악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재앙을, 복을 불러오는 것이구나...내 안의 업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내 인으로 인해 수많은 무량보배가 또아리치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옛 선지식이 시장바닥에서 상인이 면목었다는 것을 보고 본래면목을 깨쳤다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복지활동을 하며 다양한 이들을 보니 이들이 나의 수행에 선생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이들을 만나면 내안에도 비슷한 악이 있음을 보게 되고, 이들을 제도하면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제도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복지가 수행이기에 수행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복지 수요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불교계도 복지활동에 변화를 추구해야 할 텐데요. 스님은 불교계의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의 복지는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서 모든 복지를 소화했죠.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인과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불교계가 노인복지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를 비롯해, 장애인, 미혼모, 영유아 복지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1년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3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양특례법이 새로 만들어져 미혼모의 앞으로 호적을 올리게 되어 부자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부모의 보살핌이 힘든 아이를 보육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양육권만 포기하면 어느 기관에서 어디서 보육하는지 까지 정보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원에 관한 법은 사회복지법과 다릅니다. 시설을 지어 1년 이상 운영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온 삼천사 성운 스님(인덕원 이사장)은 '주는 행복'으로 갈애에서 벗어나 비움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불교계가 노인복지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미혼모·영유아·청소년 복지에 나서자고 말했다.

25개 침상을 보유한 녹번역 인근 노인요양원을 개조하여 영유아 보육원으로 개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 불교계를 비롯해 전국의 복지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한 영유아 분야도 앞장서서 개척해나가고 싶고 이번 상을 수상하며 그 발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스님의 복지원력을 뒷받침하는 삼천사도 새롭게 불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원호 대사가 창건한 삼천사를 창종해 현재에 이르게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삼천사는 어떻게 변모할지 말씀해주세요.

저의 마지막 원은 삼천사를 삼보사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천사 경내에는 1988년 미얀마에서 이운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있습니다. 불보사찰에 사부대중이 수행할 수 있는 시민선방과 힐링센터 등을 세워 승보사찰의 기능을 하고, 또 불교 도서관을 세워 법보사찰의 역할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탈하는 청소년들과 가정불화로 인해 오갈 곳이 없는 현대인들이 머무르는 곳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산사에서 머물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설도 세우고자 합니다. 즉 삼천사를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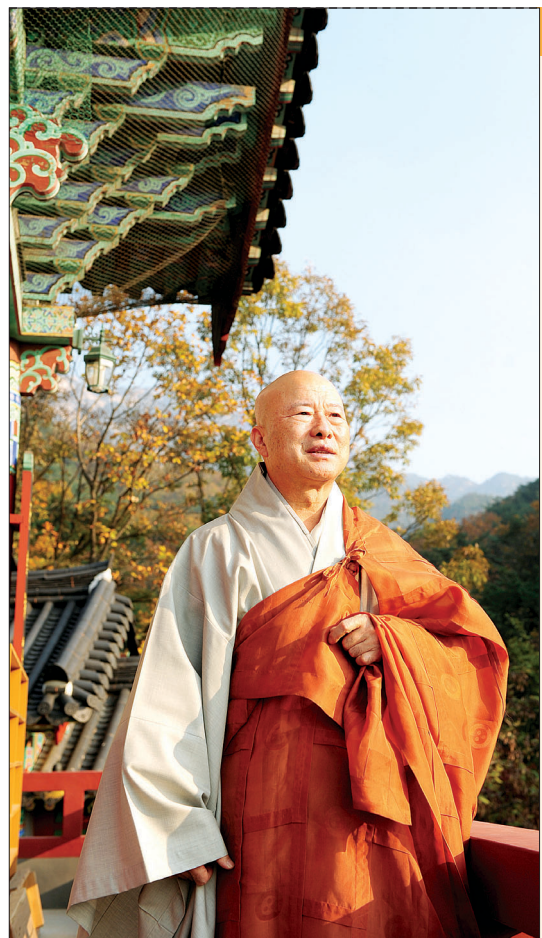
것입니다. 사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곳이 될 때 불국 정도가 이뤄질 것입니다. 사찰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돼야 하며 이는 복지라는 그릇으로 전달이 되겠지요. 삼천사는 전통사찰이기에 용지가 확보된다면 빠르게 5년에서 늦으면 1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쉼터역할을 하는 사찰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스님께서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하루를 한생과 같이 삽니다. 저녁에 불을 끌 때면 '아,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생이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할 때 맥박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구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시 맥박이 떨어지니 점차 생을 양보하게 됐습니다. 5년, 3년, 2년...계속 맥박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게 주어진 인연대로 머물다가 갔습니다'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군요.

우리의 생도 집착하면 비움을 막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를 털어버리면 통찰지가 나오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자리를 비추는 밝은 태양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 합니다. 분별심을 놓고 텅 빈 비움 속에서 함께 자비를 실천해 갑시다.



성운 스님은...

“수좌 되라” 권유 뿌리치고 조계사 화장실 청소... 복지학 교수

동진출가 |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불교와의 지중한 인연으로 동진출가의 길을 걸었다. 1960년 10세의 나이에 보은 법주사에 입산한 이후 1961년 수원 용주사로 불교를 더욱 배우기 위해 오게 됐다.

용주사에서 성운 스님은 대강백 관음 스님에게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불교의 기본학문도 배우게 된다. 스님은 그곳에서 동시에 탄허, 운허 스님에게도 경전을 배웠다. 용주사에서 3, 4년간 불교 및 경학 기초를 익힌 스님은 해인사로 향해 지관 스님에게 강원교육을 받았다. 스님은 1968년 교육을 마치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1년간 후배 학인들을 가르치는 중강 소임을 맡게 된다.

당시 해인강원에서는 대학 출신 스님들이 많았으며 이에 스님은 현대학문을 배우는 뜻을 세웠다. 당시 일타 스님과 성철 스님 등은 스님이 수좌가 될 것을 권유했지만 스님은 자신의 길이 이미 서있던 터였다.

서울로 상경 후 스님은 조계사에서 수위와 화장실 청소를 하며 머물렀다. 다른 소임에 비해 보시금이 많았고, 그 돈으로 공부할 하기 위해서였다. 1975년 종단정치의 바람 속에 스님은 제방 선방에서 정진한 후 1979년 삼천사가 위치한 은평구에 주석하게 된다. 이후 절에 들어온 보리살이며, 라면, 연탄 등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자비사상을 실천했다. 이후 삼천사는 스님의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2만 신도들의 수행도량이 됐으며 복지불사의 기반이 됐다.

스님은 1984년 조계종 사회부장을 맡으며 기독교계의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에 나서게 됐다.

인덕원 설립 |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세워 서울 진관동의 노인전문요양원을 20개, 위탁 운영기관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노숙자 쉼터 등 다양하고

이용하는 연인원이 700만 명에 달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2009년에 재개원한 노인전문요양원 삼천사 인덕원은 현재 300여 병상이 모두 찰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간보호사 40여 명, 방문요양사 160여명이 500여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교정교화 | 스님의 사회복지에서 교정분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스님은 삼천사에 부임한 1979년 이후 지역사회 청소년 교화에 앞장서 왔다. 가출과 비행청소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스님은 지체없이 달려갔으며 서울구치소와 서대문형무소 등 전국의 교도소를 찾아갔다. 스님이 교도소에서 주관한 법회만도 1200여회에 달한다. 또 포교포도 20년간 진행해 800여 법회를 주관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에 불교서적이 없음을 절감해 불서 10만권 보내기 운동을 하였고,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은평구립도

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런 스님의 복지 사상은 《금강경》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법화포살사상을 활용한다. 스님은 불자독송집으로 《금강경강해》를 펴내고, 신해독송용과 원문주석 해의 2종의 《묘법연화경》을 펴냈다.

인재양성 | 인재불사에 원을 세운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의 사회복지에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복지에 대한 개요와 이론을 담은 《노인복지현장경험론》, 《사회복지실천현장론》, 《불교사회복지론》 등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사회복지론과 불교사회복지론을 강의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성운 스님은 이 시대와 이 사회에 활동하는 원력보살로 스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대중들의 열정을 보며 우리가 사회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